

<혜성가>의 창작 시기와 내용 검토

– 미항공우주국(NASA) JPL 시스템을 중심으로 –

하 성 운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I. 머리말
- II. <혜성가>의 창작 시기
- III. <혜성가>의 창작 동기
- IV. <혜성가>의 내용 검토
- V. 맺음말

<국문 요약>

<혜성가>는 혜성의 출현과 관련된 향가 작품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혜성가>의 창작 시기를 기존의 역사 기록과 함께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제공하는 'JPL 데이터베이스'라는 천문학적 연구 방법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지금까지 <혜성가>의 창작 시기를 역사 문헌을 근거로 추정해왔다. 대표적인 견해가 조동일의 594년설과 서영교의 607년설이었다. 이들의 입론은 둘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사 문헌과 미항공우주국의 JPL 천문 기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필자가 미항공우주국의 첨단 JPL시스템으로 <혜성가>와 관련된 혜성을 도출해 낸 것이 바로 608년에 출현한 Pons-Brooks 혜성이다. 『수서』의 기록에 따르면 이 혜성은 오래지 않아 사라졌다. 이 시기 용천사가 <혜성가>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혜성가>의 창작시기는 혜성의 출현시점보다 사라진 시점이 중요하다. <혜성가>의 기술물을 보면 혜성이 출현하였지만 노래를 불렀더니 별의 궤변이 즉시 사라졌다는 기록 때문이다. 용천사가 혜성을 봤을 때는 멀리서 오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혜성이 사라지는 막바지에 관측했던 것이다. 따라서 <혜성가>의 창작시기는 608년(진평왕 30년)으로 폰스-브룩스 혜성이 지구에 출현한 608년 7,8월 이후로 『수서』기록의 608년 9월쯤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어서 진평왕 30년(608) 전후의 역사 기록과 함께 <혜성가>의 창작 동기를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점검하면서 다시 검토하였다. <혜성가>의 창작은 진평왕 30년에 있었던 혜성의 등장과 관련이 깊다. 그런데 여기에서 혜성 출현은 단순한 천문학적인 현상만은 아니었다. 필자는 <혜성가>와 관련 기록이 당시의 국내외적 상황과 정치 현실을 배설해놓은 상징적 기술물로 보았다. 7세기 초엽의 신라는 국내적으로 진평왕이 상부 귀족세력의 견제를 벗어나 친정체제를 구축해가던 시기였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왜국의 침략에 대비하여 경계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던 시기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608년에 갑자기 혜성이 출현한 것이었다. 그런데 <혜성가>를 살펴보면, ①‘왜적의 침입’, ②‘혜성의 출현’, ③ ‘<혜성가>의 창작과 혜성의 소멸’, ④‘왜적의 환국’의 순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혜성가>의 제작은 대내적인 정치 갈등보다는 왜적의 침입이라는 대외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당시 신라 조정에서는 변방의 봉화와 혜성의 출현을 왜적의 침략이라는 국가적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혜성가>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나왔다고 보았다.

<혜성가>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필자는 1~4행의 ‘舊理’에 주목하여 왜군의 침입은 가요 창작 이전에 있었던 과거적 사건으로 파악하였다. 반면에 5행부터 8행까지는 화랑의 산행과 혜성의 출현에 관련된 현재적 사건으로 보았다. 마지막 9~10행은 혜성은 산 아래로 떠나가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왜군과 혜성으로 인한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결과로 보았다. 이를 보면 <혜성가>는 과거의 왜군 침입, 현재적 사건으로 608년 당시의 혜성 출현이라는 불길한 조짐의 발생 여부, <혜성가>의 창작과 가창으로 혜성의 소멸이라는 사건 해결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 나라의 근심거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읍천사의 <혜성가>는 바로 그와 같은 국내외적 위기를 대처하며 극복해가는 과정을 담은 노래로 여겨진다. 따라서 <혜성가>는 과거 왜적의 침입과 현재의 혜성 출몰이라는 좋지 않는 조짐을 경계하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진평왕의 정치적 자신감을 드러낸 ‘치세가’로 규정할 수 있겠다.

주제어: 혜성가, 나사, 폰스브룩스혜성, 헬리혜성, 향가, 진평왕, jpl데이터베이스, 일본군, 축자, 신라, 치세가, 제의가, 의식가.

I. 머리말

『삼국유사』 권5에 따르면 신라 진평왕 시기에 혜성이 나타나 심대성을 침범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용천사가 노래를 지어 부르니 혜성의 변괴가 사라지고 일본군도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것과 관련하여 용천사의 <혜성가>가 등장한다. 혜성의 출현은 고대인들에게 불길한 징조의 대상이었다. 고대인들은 혜성이 출현하면 왕의 죽음을 예견하거나 전쟁이 발생한다고 믿어왔다. 그것은 실제 관측할 수 있는 자연현상에 대한 두려움인 동시에 하늘이라는 신성 공간에서 벌어지는 미지의 영역이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것에는 천체의 변괴를 나라의 재앙에 대한 전조로 연관을 지어 해석하는 고대인들의 세계관과도 맞닿아 있었다.

<혜성가>는 혜성의 출현과 관련된 향가 작품이다. 진평왕 재위 시기(579~632)에 지어진 이 작품은 창작 과정이 혜성의 등장과 관련이 깊다. 기술물에 등장하는 일본군의 환국 시기도 작품을 해석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것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혜성가>의 창작시기를 각각 594, 602, 607, 623년으로 잡았다.¹⁾ 여기에서 602, 623년 설은 신라를 침범한 일본군 역사기록에 의거한 주장이고, 594, 607년 설은 중국 역사서에서 보이는 혜성 출현의 기록을 바탕으로 추정된 것이다.

용천사가 노래를 지어 혜성을 퇴치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 것을 감안한다면, 일본국의 침략보다는 혜성의 출현 시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한국 학계에서는 혜성의 출현시기와 관련한 창작설이 지지를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동일이 제기한 594년 설이 힘을 얻는 추세이다. 조동일의 594년 설은 역사적·문헌적 기록들을 근거로 하여 설정한 창작 시기이다. 물론 이러한 역사적 기록들은 오차

1) 황병익, 「<彗星歌>의 爭點과 意味 考察」, 『한국시가연구』 17집, 한국시가학회, 2005, 190면 참조.

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중국 역사서인 『수서』의 기록에서는 혜성의 출현이 594년 11월로,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는 594년 봄 정월로 기록되어 있다. 본래 삼국시대 천문 기록은 오차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혜성가>의 창작 시기를 종래의 불확실한 문헌 기록으로만 추정한다면, 그것의 혼란은 여전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혜성가>의 창작 시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역사 기록과 함께 첨단 과학 시스템을 사용하여 도출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첨단 과학 시스템이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제공하는 'JPL 데이터베이스'라는 천문학적 연구 방법으로 신라 진평왕 시기에 있었던 혜성의 출현 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JPL 데이터베이스'의 혜성 자료들은 과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관측된 기록이므로 그것의 정확성은 기존의 문헌기록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혜성가>의 관련 기술물을 토대로 관련 역사 기록을 통해 가요의 창작 동기를 점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추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연구들을 점검하면서 <혜성가>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자 한다.

II. <혜성가>의 창작 시기

<혜성가>의 창작시기는 역사 문헌을 근거로 추정해왔다. 살펴보면, 『삼국사기』나 중국 역사서의 혜성 기록을 통해 <혜성가>의 창작시기는 594년²⁾ 설과 607년³⁾ 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594년 설을 주장한 조동일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중국의 역사서인 『수서』의 '594년 진평왕 16년 11월 겨울 계미에 혜성이 각성(角星)과 항성(亢星)자리에 나타났다는 기

2) 조동일, 「彗星歌의 창작 연대」, 『韓國詩歌文學研究』(백영 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2), 新丘文化社, 1983, 64면.

3) 서영교, 「『삼국유사』 感通의 「彗星歌」 創作 背景」, 『신라문화제 학술발표논문집』 32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1, 162면.

록을 바탕으로 혜성의 출현 시기를 추정하였다. 조동일은 『삼국유사』에서의 ‘犯心大星’과 『삼국사기』의 ‘于角亢’이 같은 동방에 있는 별이므로 출현 방위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⁴⁾

하지만 조동일이 언급한 28수에서 동방칠수인 角·亢은 처녀자리인 반면에, 심대성인 안타레스는 전갈자리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같은 동방칠수이지만 처녀자리와 전갈자리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게다가 조동일은 심대성이라고 하는 안타레스가 여름철 별자리로 겨울철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중국 사서에서는 혜성이 594년 음력11월 한겨울에 출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角·亢은 위치상 음력11월의 혜성으로 여름철 별자리 안타레스와 같은 동방에 위치할 수는 있더라도 같은 시간에 관측될 수 없다.

다음으로 607년 설을 주장한 서영교는 중국역사서에 보이는 607년의 혜성을 헬리혜성으로 보면서 <혜성가>의 창작시기를 그 시점으로 상정하였다. 하지만 나사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JPL 천문학 기록을 살펴보면, 607년 헬리혜성의 출현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래 <자료①>은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제공하는 JPL천문관측 시스템이다.⁵⁾ 여기에서 헬리혜성에 관한 나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마지막 관측 시기는 1994년 1월 11일이다. 실제 헬리혜성이 최근 근일점⁶⁾을 지난 시점은 1986년이다. 이 말은 헬리혜성이 1986년 육안으로 볼 수 있었고 나사에서 망원경으로 계속 추적한 1994년까지 관측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헬리혜성의 공전주기 75.32년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헬리혜성이 554~562년, 630~638년쯤 지구에 출현했던 것으로 보인다. 헬리혜성의 관측시기를 넓은 범위의 폭으로 계산했음에도 서영교가 주장한 607년은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 역사서의 천문

4) 조동일, 앞의 논문, 63면.

5) https://ssd.jpl.nasa.gov/sbdb.cgi?ID=c00001_0 (2018.10.16.)

6) 궤도에서 지구 등의 행성이 태양계 주위를 공전하면서 태양과 가장 가까워졌을 때의 지점. 혜성은 근일점 부근에서 가장 밝게 보인다.

기록에 언급된 607년과 608년 혜성은 헬리혜성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자료①>

Jet Propulsion Laboratory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 View the NASA Portal
+ Center for Near-Earth Object Studies

JPL HOME EARTH SOLAR SYSTEM STARS & GALAXIES TECHNOLOGY

Solar System Dynamics

BODIES ORBITS EPHEMERIDES TOOLS PHYSICAL DATA DISCOVERY FAQ SITE MAP

JPL Small-Body Database Browser Search: [help]

1P/Halley
Classification: Halley-type Comet* [NEO] SPK-ID: 1000036

[Ephemeris | Orbit Diagram | Orbital Elements | Mission Design | Physical Parameters | Discovery Circumstances | Close-Approach]

[show orbit diagram]

alternate orbits: [epoch=1994-Feb-17.0] J863/77 (default) ▼

Orbital Elements at Epoch 2449400.5 (1994-Feb-17.0) TDB
Reference: **JPL J863/77 (heliocentric ecliptic J2000)**

Element	Value	Uncertainty (1-sigma)	Units
e	0.967142908462304	5.035e-09	
a	17.8341442925537	3.8913e-08	au
q	0.585978111516909	8.8924e-08	au
i	162.262690579161	6.7791e-06	deg
node	58.42008097656843	9.0539e-06	deg
peri	111.3324851045177	1.1714e-05	deg
M	38.3842644764388	1.4226e-07	deg
t _p	2446467.395317050925 (1986-Feb-05.89531705)	4.7896e-06	TDB
period	27509.1290731861	9.0034e-05	d
	75.32	2.465e-07	yr
n	.01308656479244564	4.2831e-11	deg/d
Q	35.08231047359043	7.6546e-08	au

Orbit Determination Parameters

# obs. used (total)	7428
data-arc span	57852 days (158.39 yr)
first obs. used	1835-08-21
last obs. used	1994-01-11
planetary ephem.	DE405
SB-pert. ephem.	SB405-CPV-2
fit RMS	1.0147
data source	ORB
producer	M.S.W. Keesey
solution date	2001-Aug-02 13:51:39

Additional Information

Earth MOID = .0637815 au
T_{jup} = -0.605

Additional Model Parameters

Parameter	Value	Uncertainty (1-sigma)
A1 [EST]	2.696463929511566E-10	3.084E-11
A2 [EST]	1.554613388970244E-10	3.205E-15
S0 [EST]	861.6729585598083	16.03

현재 천문학계에서 지구를 지나가는 혜성을 관측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혜성가>가 창작된 신라 진평왕 시기에는 혜성을 오직 육안으로만 관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제 육안으로 관측 가능한 혜성들을 미국 나사에서 제공하는 JPL 데이터베이스로 추려보고, 신라 진평왕 시기에 신라인들이 관찰할 만한 혜성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②>7)

혜성명	공전주기(년)	절대등급	관측시기
Ikeya-Zhang	366.51	5.2	2002.10. 2.
Swift-Tuttle	133.28	4.5	1995. 3.29.
Halley	75.32	5.5	1994. 1.11.
Pons-Brooks	70.85	5	1954. 8.23.
Olbers	69.52	5	1956. 9.12.

오늘날 과학 기구를 사용하면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태양계에서의 혜성은 수백 개에 이른다. 하지만 신라시대에는 지금처럼 혜성을 관측할 수 있는 첨단 장비가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혜성들로 자료 범위를 축소하여 진평왕시기 혜성의 출현 시기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 <자료②>에서의 절대등급은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기준의 등급이다. 절대등급은 낮을수록 밝다는 뜻으로 태양의 절대등급은 4.8이다. 따라서 <자료②>의 혜성들은 절대등급이 평균 5정도로 밝기가 태양과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절대등급은 같은 거리를 기준으로 밝기를 측정한 것이므로 멀리서 지구를 지나가는 혜성과 태양 빛의 밝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 다만 1986년 육안으로 관측된 헬리혜성의 절대등급이 5.5인 것을 감안한다면 표에서 언급하고 있는 혜성들은 충분히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Ikeya-Zhang 혜성은 관측시기가 2002년이고 공전주기가 366.51년이다. 이를 고려해 진평왕 시절을 중심으로 계산해보면 535년 정도에 지구에서 관측된다. Swift-Tuttle 혜성은 1995년에 발견되어 이것의 공전주기가 133.28년이다. 따라서 진평왕 이전의 528년과 진평왕 이후의 662년 정도에 관측될 수 있었다. Olbers 혜성은 나사기록에 의하면 1956년 관측된 바 있다. 공전주기가 69.52년으로 과거의 565년과 635년 정도에 관측될 수 있었다. Halley 혜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평왕 재위 기간에 지

7) <https://ssd.jpl.nasa.gov/sbdb.cgi> (2018.10.16.)

구에서 관측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혜성들은 지구상에서 육안으로 보일 수 있었겠지만 진평왕 시절에는 관측되지 않았으므로 <혜성가>에 등장하는 혜성으로 볼 수 없다.

<자료②>에서 혜성들의 관측시기와 공전주기를 계산해 신라 진평왕 시기(579~632) 관측이 가능한 혜성은 유일하게 608년 Pons-Brooks 혜성으로 압축된다. 폰스-브룩스 혜성과 관련하여 아래 <자료③>을 살펴보자.

<자료③>

The screenshot shows the JPL Small-Body Database Browser interface for comet 12P/Pons-Brooks. The page includes a search bar, navigation tabs, and detailed orbital data. The main content area is blue and contains the following information:

12P/Pons-Brooks
 Classification: Halley-type Comet* [NEO] SPK-ID: 1000068
 [Ephemeris | Orbit Diagram | Orbital Elements | Mission Design | Physical Parameters | Discovery Circumstances | Close-Approach]
 [show orbit diagram]

alternate orbits: [epoch=1954-Sep-15.0] 15 (default) ▼

Orbital Elements at Epoch 2435000.5 (1954-Sep-15.0) TDB
 Reference: **JPL 15** (heliocentric ecliptic J2000)

Element	Value	Uncertainty (1-sigma)	Units
e	0.9548123941619716115170	3.0452e-08	
a	17.121223241407509618738	1.546e-05	au
q	0.7736670872976132429243	7.9e-07	au
i	74.176894232522556649200	4.0465e-05	deg
node	255.8911443583019	8.6118e-05	deg
peri	199.028468565403	0.00015453	deg
M	1.601583044410965	6.1764e-06	deg
t _p	2434885.380850198988 (1954-May-22.88085020)	0.00033916	TDB
period	25876.20671496702	0.035049	d
	70.85	9.596e-05	yr
n	.01391239465527121	1.8844e-08	deg/d
Q	33.4687793955174	3.0222e-05	au

Orbit Determination Parameters

# obs. used (total)	278
data-arc span	51861 days (141.99 yr)
first obs. used	1812-08-26
last obs. used	1954-08-23
planetary ephemeris	DE405
SB-pert. ephemeris	SB405-CPV-2
fit RMS	1.1877
data source	ORB
producer	M.S.W. Keesey
solution date	2001-Nov-05 15:37:25

Additional Information

Earth MOID =	.1873 au
T _{jup} =	0.598

Additional Model Parameters

Parameter	Value	Uncertainty (1-sigma)
A1 [EST]	-1.021678908475834E-9	2.949E-10
A2 [EST]	-2.705135237076094E-10	8.372E-14

위의 <자료③>은 미항공우주국(NASA)의 JPL시스템에 나와 있는 관련 기록이다.⁸⁾ 이를 살펴보면 폰스-브룩스 혜성의 마지막 관측일은 1954

년 8월23일이다. 환산하면 1954.64년이다. 이 혜성의 공전주기인 70.85년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양력 608년 7,8월경 폰스-브룩스 혜성은 지구에서 관측될 수 있었다. 신라 진평왕 대에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었던 혜성을 오늘날 나사의 JPL시스템에 의존한다면 폰스-브룩스 혜성이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삼국유사』 「감통」편 <혜성가 진평왕대>조를 보면 혜성이 심대성을 범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심대성은 자기 나라거나 임금의 운세를 나타내는 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제 별자리 안타레스의 이름이기도 하다. 안타레스는 전갈자리에 속하는 별로, 여름철에 육안으로 관측된다. 폰스-브룩스 혜성 또한 여름에 관측되기 때문에 심대성은 안타레스이고, 폰스-브룩스 혜성이 그것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모든 별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안타레스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시점 그리고 폰스-브룩스 혜성의 출현시기와 이동방향까지 고려한 정확한 측정은 현재 가능하지 않다. 다만 시기적으로 동시간대에 출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혜성과 출현과 관련된 608년 전후로 중국의 역사서 기록을 검토해보자.

『수서』 권3, 양제 대업 3年(607)

- 봄 정월 丙子에 長星이 竟天하여, 東壁에 보였다가 二旬 후에 止했다.
- 2월 己醜, 彗星이 奎(에 나타나), 文昌을 (掃)쓸고, 大陵을 (歷)지나 太微으로 들어가, 帝座를 掃(쓸었다)했다. 전후 백여 일 후에 止했다.
- 5월 癸酉, 有星孛於文昌上將, 星皆動搖.

『수서』 권3, 양제 대업 4年(608)

- 9월 戊寅, 彗星이 五車에 나타나서 文昌을 掃하고(쓸고), 房에 이른 후에 滅했다.⁹⁾

혜성의 출현시기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심대성이 동쪽에 위치한 별

8) https://ssd.jpl.nasa.gov/sbdb.cgi?ID=c00012_0 (2018.10.16.)

9) 서영교, 앞의 논문, 155~156면 참조.

이기 때문에 역사서에 기록된 동쪽에 출현한 혜성과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심대성 안타레스는 전갈자리 28수 동방칠수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곧 동쪽에 있다는 것이 아니다. 하루 중에도 모든 별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별이 어느 방향에 있다고 하면 틀린 말이다. 따라서 『삼국유사』의 심대성을 혜성과 연관시키려면 별의 위치보다는 계절을 고려하는 편이 낫다. 심대성 안타레스는 여름철에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위의 『수서』에서 심대성이 보일 수 있는 시기는 607년 음력5월 혜성이 문창에 떠서 움직였다는 기록과 608년 음력9월의 기록이다. 우선 607년 음력5월 혜성의 경우 며칠 동안 혜성이 보였다기보다는 금세 사라진 모양이다. 607년 1월과 2월의 기록을 살펴보면 20일, 100일 후 혜성이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는 반면, 음력 5월 혜성의 경우는 어떠한 경과를 거쳐 멸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608년 음력9월 혜성은 五車에 나타나서 문창을 쓸고 방에 이른 후 멸했다는 기록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607년 5월과 608년 9월의 혜성은 계절상 심대성인 안타레스가 보이는 시기이다. 또한 이 혜성들이 출현하여 사라진 시점은 607년 1,2월에 출현한 혜성들이 20일,100일 경과 후 사라졌던 것과는 달리 수명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혜성가>에는 노래를 부르니 곧 혜성이 사라졌다고 하니 『삼국유사』의 기록과도 맞아떨어진다. 따라서 둘 중에서 폰스-브룩스 혜성일 가능성이 높다. 하나를 선택한다면 608년 음력9월의 기록이다.

폰스-브룩스 혜성이 양력 608년 8월 전후로 지구에서 관측될 수 있었고 실제 중국·신라에서 육안으로 보인 시점은 608년 음력 9월경으로 보인다. 용천사가 혜성을 봤을 때는 멀리서 오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혜성이 사라지는 막바지에 관측했던 것이다. <혜성가>의 창작시기는 혜성의 출현시점보다 혜성이 사라진 시점이 중요한 요소이다. 앞서 <혜성가>의 기술물을 보면 혜성이 출현하였지만 노래를 불렀더니 별의 궤변이 즉시 사라졌다는 기록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혜성가>는 미 항공우주국 JPL이라는 과학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608년 양력 8월 전후로 지구에서 관측될 수 있었고, 『수서』의 기록에 따르면 608년 음력 9월 중국·신라에서 혜성이 관측되었으나 오래지 않아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혜성가>의 창작시기는 608년(진평왕 30년)으로 폰스-브룩스 혜성이 지구에 출현한 608년 7,8월 이후로 『수서』기록의 608년 9월쯤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시기 융천사가 <혜성가>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III. <혜성가>의 창작 동기

<혜성가>의 창작 시기는 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폰스-브룩스 혜성이 지구에 출현한 608년 8월 전후하여 『수서』 기록의 608년 9월쯤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혜성가> 관련 기술물을 608년 전후 상황의 기록과 함께 창작 동기를 점검해 보겠다.

608년은 진평왕이 자신의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진평왕은 일찍이 화백회의를 통해 진지왕의 폐출을 통해 추대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의 중심 세력은 노리부나 수을부와 같은 소수의 상위 진골이었고, 한편으로 그들의 견제를 받기도 하였다.¹⁰⁾ 이 과정에서 진평왕은 왕권 강화를 둘러싸고 귀족세력들과 크고 작은 대립과 갈등을 치렀다. <혜성가>가 창작된 시기는 진평왕이 상부 귀족세력의 견제를 벗어나서 친정체제를 구축해가던 시기였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중국 수나라와 왜국, 고구려와 백제의 국제 관계에서 긴장 관계에 놓여 있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따르면 607년 수나라 양제는 고구려 영양왕(18년)에게 입조(入朝)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선언하였다.¹¹⁾ 같은 해 백제 무왕은 3월에 수나라에 좌평 왕

10) 박해현, 「신라 진평왕대 정치세력의 추이 -왕권강화와 관련하여-」, 『역사학 연구』 2권, 호남사학회, 1988, 21면.

11) 김부식, 『삼국사기 1』, 한길사, 1998, 399면.

효린(王孝隣)을 보내 공물을 바치게 하면서 고구려 토벌을 요청하였고, 수나라 양제가 허락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고구려가 눈치 챘는지 5월에 군사를 보내 백제의 송산성(松山城)을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그러자 고구려는 다시 군사를 옮겨 석두성(石頭城)을 습격하여 3천 명을 사로잡았다는 기록이 나온다.¹²⁾

이처럼 8세기 초기의 국내 정세는 고구려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고, 고구려와 백제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다. 백제도 신라보다 상대적으로 강성하였다. 그래서 신라는 그러한 국제적인 정세에서 수나라를 이용해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내고자 하였다. 「신라본기」에 따르면 608년 진평왕(30년)은 고구려가 자주 국토를 침범하는 것을 우려하여 수에 군사를 요청하여 고구려를 치고자 하였다. 이에 원광에게 명해 군사를 요청하는 <결사표>를 짓게 하였다. 백제 때와 마찬가지로 고구려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신라를 공격하였다. 608년 2월 고구려는 신라 북쪽 변경을 침범해 8천명을 사로잡아 가고, 4월에는 우명산성(牛鳴山城)을 함락시켰다.¹³⁾ 이처럼 삼국은 608년을 전후로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쟁을 감행하고 있었다. 신라는 608년 초 고구려의 침입을 두 차례 받아 전쟁에 대한 공포감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주변 변방에서의 경계는 더욱 강화하였다.

한편, <혜성가>에는 왜군의 회군과 관련된 언급이 있다. 그렇다면 당시 신라의 대외 관계는 어떠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추고천황 8년(600)에 신라가 가야를 공격하자 가야를 위해 신라를 침공하였다. 같은 왕 10년(602)에 일본은 신라를 공격하고자 4월 축자(筑紫:츠쿠시)에 도착하였으나 내목황자가 병에 걸려 정벌을 중단했다. 그러다가 11년(603)에 일본은 내목황자가 축자에서 죽자, 내목황자의 형 당마황자를 신라 정벌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같은 해 7월 일본군은 출발하였으나 따라왔던 처 사인희왕이 죽자 되돌아갔다는 기록이 있다.¹⁴⁾ 600년 일본

12) 김부식, 위의 책, 547면.

13) 김부식, 위의 책, 134면.

군이 신라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후로 일본군은 신라를 침략하려는 움직임만 보였다. 혜성이 출현한 608년에는 일본군의 침공 기록은 없다. 하지만 진평왕 시기에 일본은 신라에 대해 끊임없이 침입을 도모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는 그러한 왜국의 침략 의도를 인지하고 경계 강화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이 시기 일본군의 신라침략 및 계획에 있어 왜군의 전진 기지가 축자(筑紫:츠크시)¹⁵⁾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축자는 일본군의 신라 공격의 거점으로 『일본서기』에 따르면 추고천황 16년인 608년 여름 4월 소야신매자가 수나라에서 귀국하였는데, 수나라 사인 배세청(裴世淸)과 하객(下客)12명이 소야신매자를 따라서 축자(筑紫)에 도착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¹⁶⁾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608년 무왕(9년) 3월 사신을 수에 들여보내 조공하고, 수나라 사신인 배세청이 왜국에 사절로 가면서 백제 남쪽 길을 경유했다는 기록에 나온다.¹⁷⁾

당시 신라에서는 축자 지역에서 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608년 여름 음력 4월 신라 변방에서는 수나라의 배세청이 왜국에 사절로 가면서 백제 남쪽 길을 경유하여 축자로 가는 배를 관측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왜국이 고구려와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신라에서 그들의 동향을 주시하며 정탐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과정에서 왜국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신라 변방에서 봉화를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608년에는 『삼국유사』나 다른 역사서에 남길 정도로 일본의 큰 침략 기록은 없었지만, 이전부터 왜의 노략질이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7세기 초엽에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 그것에 일본의 내침을 두고 긴장 상태에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608년 9월에 갑자기 혜성까지 출현한 것이었다.

14) 연민수 외6, 『역주 일본서기 3』, 동북아역사재단, 2013, 50~54면.

15) 황병익, 앞의 논문, 185면.

16) 연민수 외6, 앞의 책, 64면.

17) 김부식, 『삼국사기 2』, 한길사, 1998, 547면.

예로부터 봉화는 외세의 침략을 알리는 것이었고, 혜성은 예로부터 정치적으로 왕권과 관계되는 불길한 조짐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물이었다. 고대인들은 혜성의 출현을 왕의 죽음이나 國亡, 兵革 및 신왕조 출현의 豫徵으로 보았기 때문이다.¹⁸⁾ 그래서 당시 신라 조정에서 혜성 출현을 심각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인 이유가 그것에 있었다. 게다가 변방에서 봉화가 올라온 것은 다름 아닌, 왜적의 침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관련 지문인 『삼국유사』 「감통」편 <혜성가 진평왕대>조에 나와 있는 노래와 기술물을 살펴보면, ①‘왜적의 침입’, ②‘혜성의 출현’, ③ ‘<혜성가>를 지어 부름’, ④‘왜적의 환국’의 순서로 이어진다. 이를 보면, <혜성가>의 제작은 대내적인 정치 갈등보다는 왜적의 침입이라는 대외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당시 신라 조정에서는 변방의 봉화와 혜성의 출현을 왜적의 침략이라는 국가적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혜성가>가 지어진 시기는 진평왕이 폐위된 진지왕의 세력을 구축하고 자신을 옹립한 귀족연합 세력과 끊임없는 권력투쟁을 통해 친정체제를 구축해 나가던 기간이었다. 『삼국유사』 「감통」편 <혜성가 진평왕대>조에 있는 <혜성가>와 관련 기록은 당시의 국내외적 상황과 정치 현실을 배설해놓은 상징적 기술물로 여겨진다. 그래서 <혜성가>는 변방의 봉화와 혜성의 출현이라는 국내외적 위기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난을 극복하고 국정의 자신감을 담은 ‘치세가’로 여겨진다. 그것은 <혜성가>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여겨진다. <혜성가>의 1~4구에서는 왜군이 와서 봉화를 든 변방이 있다고 말한다. 5~8구에서는 세화랑이 산구경을 가려는데 혜성이 나타났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봉화와 혜성은 앞서 말한 것처럼 외적의 침입과 같은 국가적 우환과 시련을 상징한다. 그런데 결사인 9~10구에서는 그것이 모두 사라졌으니 무슨 혜성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여기 결사는 국내외적인 위협에 대한

18)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277-278면.

자신감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천사의 <혜성가>는 왜군의 침입과 혜성으로 비롯되는 국가적인 불길한 조짐을 앞두고 없애달라고 부른 주술가요나 기원가요라 기보다는, 그와 같은 국내외적 위기를 대처하며 극복한 이후의 정치적인 자신감에서 창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IV. <혜성가>의 내용 검토

지금까지 <혜성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서사 기록의 근거에만 치중한 나머지, 작품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연구들도 없지 않다. 본고에서는 혜성의 출현과 관련된 창작시기, 일본군 내침과 관련된 역사 기록, 노래의 어석 연구에 관한 그동안의 성과들을 점검하면서 <혜성가>의 가요 내용을 검토해보려 한다.

『삼국유사』에 실린 향가 작품들은 그것과 관련된 記述物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들을 부대설화, 배경설화, 또는 관련설화 등으로 명명되어 온 향가와 主從的이거나 대등한 관계, 혹은 독립적인 관계의 의미에서 記述物이라고 지칭하였다.¹⁹⁾ 기술물은 작품과의 연관성 측면, 그것의 성격이 설화적 요소와 역사적 문맥 사이에서 어느 것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남아있다. <혜성가>도 마찬가지다. <혜성가> 기술물에는 혜성의 출현과 일본군의 환국 그리고 화랑의 유력(遊歷) 내용이 담겨있다. 이러한 내용을 설화적 서술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지만²⁰⁾, 실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혜성가> 연구는 일본군에 관한 역사적 문헌기록과 천문학 자료들을 바탕으로 혜성의 출현 시기를 밝히려는 시도가 잦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 임기중, 위의 책, 63면.

20) 최철, 『향가의 문학적 연구』, 새문사, 1983, 262~270면.

金烈圭, 「鄉歌의 文學的 研究 一斑」, 『鄉歌의 語文學的 研究』(人文研究論集4), 西江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72, 16~19면.

작자에 관해서는 용천사가 지은 것이 분명한데 직분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용천사는 천문을 관측하고 하늘의 궤변을 물리치는 임무를 담당 한 천문관인 일관이자 주술사로 보는 견해가 있다.²¹⁾ 이를 두고 일연은 국선(國仙)의 경우 이름 밑에 사(師)를 붙였다. 충담사, 월명사와 같이 용천사는 풍류도의 샤먼과 승려를 결합한 승려낭도로, 화랑의 정신적 지도자로 보는 견해도²²⁾ 일견 타당해 보인다. 풍류도는 신선사상과 샤머니즘이 하나로 융합된 신라 고유의 신앙이다. 나라가 불길한 징조에 휩싸였을 때 신라인들은 그들의 정신적 지도자인 용천사나 월명사 등을 청해 노래를 부르는 의식을 행하여 위기를 수습하고자 하였다.²³⁾

『삼국유사』 「용천사 혜성가 진평왕대」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5 거열랑, 제6 실처랑, 제7 보동랑 등 세 화랑의 무리가 금강산에 놀이를 가려는데 혜성이 심대성을 침범했다. 화랑의 무리들은 꺼림칙하게 여겨 가는 것을 그만두려고 했다. 그때 용천사가 노래를 지어 부르니 혜성의 변괴가 즉시 사라지고 일본의 군사가 저희 나라로 물러가 도리어 복이 되었다. 대왕이 듣고는 기뻐하여 화랑의 무리들을 금강산에 놀러 보냈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옛날 동해 물가
건달과(乾達婆)가 놀던 성을 바라보니
왜군이 왔다고
봉화를 올린 변방도 있구나
세 화랑이 산 보러 간다는 말을 듣고
달도 부지런히 밝히는데
길 밝히는 별을 바라보고
혜성이여! 라고 아뢴 사람이 있다
아아! 달이 아래로 떠가고 있더라
이와 어울릴 무슨 혜성이 있을는지²⁴⁾

21) 조동일, 앞의 논문, 60면.

22) 이도흠,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 푸른역사, 2000, 102면.

23) 이도흠, 위의 책, 31면.

24) 일연, 『삼국유사』, 민음사, 2007, 558면.

『삼국사기』 진평왕30년인 608년 기록을 보면 고구려의 침범을 우려한 진평왕은 원광에게 명해 수나라에 군사를 요청하는 결사표를 짓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²⁵⁾ 세속오계를 지은 인물로 알려진 원광법사에게 외교문서를 청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당시 승려의 지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진평왕대는 화랑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삼국간의 전투가 치열해져서 화랑도 출신들을 불러 모아 부대를 편성하고 병력을 보충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청소년 결사체의 성격에서 벗어나 이 시기 화랑도는 예비 전사단의 성격이 강했다.²⁶⁾

기술물을 보면 제5 거열랑, 제6 실처랑, 제7 보동랑 등 화랑의 무리가 풍악에 놀러갔음을 알 수 있다. 여기 화랑의 이름 앞에 붙은 서수는 화랑 휘하에 있는 무리를 지칭한 것으로, 화랑단의 단위 부대명을 지칭한다는 견해가²⁷⁾ 있다. 구체적으로 『화랑세기』에 나오는 화랑도의 조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화랑인 풍월주 밑에 1명의 부제가 있다. 화랑도는 크게 세 개 집단으로 나뉘는데 좌삼부·우삼부·전삼부가 있다. 삼부에는 각기 대화랑이 임명되는데 좌삼부의 대화랑은 2명의 좌화랑을, 우삼부의 대화랑은 2명의 우화랑을 거느렸다. 그 밑에는 소화랑 3명과 묘화랑 7명이 있다.²⁸⁾ 이런 화랑도의 조직 중에 배경설화의 제5, 제6, 제7의 서열이 지칭할 만한 것은 묘화랑 뿐이라는 입장이²⁹⁾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 화랑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산행을 떠났는가. 화랑도의 산수 유람은 진평왕의 제도 개혁에 부응하기 위한 화랑도의 정치적 시위³⁰⁾, 심신 단련이나 풍악산 등행놀이³¹⁾, 풍류를 즐기는 한편 신앙의례

25) 김부식, 『삼국사기 1』, 한길사, 1998, 134면.

26) 박남수, 『신라 화백제도와 화랑도』, 주류성, 2013, 417~418면.

27) 박노준, 「혜성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25~26면.

28) 이종욱, 『화랑세기로 본 신라인 이야기』, 김영사, 2000, 241면.

29) 신재홍, 「<혜성가>의 역사적 배경」, 『한국시가연구』 16집, 한국시가학회, 2004, 39면.

30) 신재홍, 위의 논문, 41면.

31) 최성호, 『신라가요연구』, 문현각, 1984, 213~214면.

를 행하기 위한 것으로³²⁾ 보는 견해들이 있다. 화랑의 산행 목적에 관해서는 입증할 만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단순히 풍류를 즐기기 위한 수단보다는 복합적 목적을 지닌 화랑도의 유람임은 분명하다.

<혜성가> 해독은 기본적으로 양주동³³⁾을 따르되, 부분적으로 다른 해독을 참고하겠다.

향가 원문	양주동 해독	현대역
舊理東尸汀叱乾達婆矣 游鳥隱城叱盼良望良古 倭理叱軍置來叱多 烽燒邪隱邊也蔽耶 三花矣岳音見賜烏尸聞古 月置入切爾數於將來尸波衣 道尸掃尸星利望良古 彗星也白反也人是有叱多 後句 達阿羅浮去伊叱等邪 此也友物北所音叱彗叱只有 叱故	네 싯몹 乾達婆이 노론 갓홀란 브라고 예스 軍두 옷다 燧슬얀 古 이슈라 三花이 오름보샤을 듣고 들두 브즈리 혀렬바에 길쓸 별 브라고 彗星여 슬븐여 사르미있다 아으 들 아래 떠갓더라 이 어우 므슴스 彗스기 이 실꼬	예전 동해 물가 건달바의 논 성을랑 바라보고 “왜군도 왔다!” 봉화를 든 邊方이 있어라 三花의 山구경 오심을 듣고 달도 부지런히 등불을 켜는데 길 쓸 별을 바라보고 “혜성이여!” 사된 사람이 있구 나 아으 달은 저 아래로 떠갓더라 이 보아 무슨 혜성이 있을꼬

10구체 향가 형식의 <혜성가>는 작품 전체가 세 토막으로 나뉜다. 1행에서 4행까지는 왜군의 침입과 관련한 내용, 5행부터 8행까지는 화랑의 산행과 혜성의 출현에 대한 기술, 마지막 9~10행은 혜성 출현에 대한 수사적 의문으로 끝맺음하고 있다. 앞의 4행까지의 노래에는 ‘乾達婆’의 어구 해석에 관한 논란이 있다. 우선 ‘乾達婆’는 불교의 수호자인 천악신(天樂神)으로, 향을 찾아가는 신인 심향(尋香)을 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건달파가 놀던 성은 천악신이 환술로 만든 성인 신기루를 뜻한다. 반면 건달파를 금강산의 명승이나 경주의 낭산으로 보는 견해들이³⁴⁾ 있다.

32) 이도흠, 앞의 책, 100면.

33) 양주동, 『고가연구』, 일조각, 1965, 561~607면.

34) 김병국, 「<혜성가>의 설화 문맥과 해석상의 쟁점」, 『한국고전시가 작품론1』

하지만 건달파를 어떤 특정한 장소로 지칭한다면 그 장소에서의 왜군 침입사실도 입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5~8행에서의 혜성 출현이 길썰별이었다는 착각의 내용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건달파를 신기루로 보는 해석이 타당하다. 신기루인 건달파와 착각으로 본 길썰별은 현실에서의 왜군의 침입과 혜성의 출현이라는 난관에 대응하여 작가의 소망이 투영된 공간인 것이다. 또한 <혜성가>에 건달파가 등장하는 것은 화랑도의 호국사상과 불연국토사상과도 연관이 있다. 신라인의 호국사상은 진흥왕대부터 불교의 호국사상을 가져와 전래의 호국사상을 강화시켰다. 이 사상은 수나라에 고구려 정벌의 결사표를 지은 원광이 화랑의 근본정신인 세속오계를 지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랑도의 호국사상과도 상통한다. 건달파는 이러한 사상과 함께 등장하였으며 천하의 인민을 보호하면서 제석천과 함께 불법을 수호하는 불연국토사상과 습합되었다.³⁵⁾

다음으로 1행에서의 ‘舊理’를 양주동은 ‘네’, 서재극은 ‘네누리’, 김완진³⁶⁾은 ‘녀리’로 읽었다. 모두 옛날이라는 의미이다. 『삼국사기』에는 <혜성가>가 창작된 진평왕 시절 왜군이 신라를 침략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일본역사서인 『일본서기』를 보면 일본의 신라 침공 계획은 591년, 602년, 603년에 있었다. 실제 침공은 600년과 623년에 발생한다. 문제는 이러한 내침 시기가 <혜성가>에 등장하는 혜성의 출현 시기³⁷⁾와 겹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필자는 <혜성가>의 해석과 관련하여 ‘舊理’에 주목하고자 한다. ‘舊理[옛]’에 주목한다면 <혜성가>의 1~4행의 내용은 가요 창작 이전에 있었던 왜적의 침입과 관련된 사건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5행부터 8행까지는 현재적 사건을 읊은 것으로 화랑의 산행과 혜성의 출현에 관한 내용이다. 화랑의 유람소식을 들은 달은 부지런히 등

(백영 정병욱 선생 10주기 추모논문집), 집문당, 1992, 90~91면 참조.

35) 김승찬, 『향가문학론』, 새문사, 1989, 203면.

36)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127~137면.

37) 일본의 신라 침공(계획)시기와 비슷한 시기 중국역사서 『수서』의 기록에 따른 혜성의 출현시점은 594년, 607년, 608년, 617년 등이 있다.

불을 켜고 있는데, 누군가 하늘에 떠 있는 길쭉별을 보고 혜성이여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서술이다. 그러한 혜성의 출현은 나라에 변괴가 발생할 것이라는 당대인들의 불안한 심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신라인들은 화랑의 정신적 지도자인 승려낭도 용천사를 불러 의식을 행한다. 용천사는 주술적인 힘을 발휘하여 혜성을 사라지게 한다. 필자는 이 혜성을 2장에서 서술한 608년 지구에 출현한 pons-brooks 혜성으로 보고자 한다. 폰스-브룩스 혜성은 중국 역사서인 『수서』기록과 비교해보면 오래지 않아 사라졌다.

길을 열어주는 별처럼 꼬리가 긴 혜성이 심대성을 침범하였지만 금방 사라지고 만 것이다. 신라인들은 혜성이 출현하면 변괴가 발생한다고 믿어왔지만 그 혜성은 지상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육안에서 사라지게 된다. 용천사는 흉조의 의미인 혜성을 吉兆의 길쭉별로 전환시켰다. 이것은 없어져야 할 혜성을 언어에 의해 선행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명령법의 소극적 발동이다.³⁸⁾ 승려 낭도인 용천사는 혜성이 발생하자 국가적 차원의 변괴를 막기 위한 의례에서 <혜성가>를 불렀다. 여기에는 <혜성가>의 1~4행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왜적의 침입과 관련된 과거적 사건이 내재되어 있다. 추가로 혜성의 출현이라는 불길한 조짐이 현재형으로 노정되어 있다.

마지막 9~10행에서는 ‘達阿羅’의 어석 해독 문제가 있다. 우선 양주동, 김완진은 ‘阿羅’를 ‘아래(下)’로 해독하여 ‘達阿羅’를 ‘달 아래’로 해석하였다. 양주동은 ‘달’을 주어로 보았으나 ‘達’이 ‘山’의 고어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에 김준영, 유창균은 이 언급을 받아들여 ‘산 아래’로 해석하였다. 이 외에 홍기문은 의태어 ‘드르르’로 보아 혜성이 떠가는 모습으로 보거나 서재극은 중세어 ‘달애-’를 근거로 ‘달아라’로 읽고 ‘인도하다’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였다.³⁹⁾ 따라서 ‘達阿羅’는 달을 주어로 보는 관점과 혜성을 주어로 보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38) 김열규, 앞의 논문, 17면.

39) 박지용 외, 『향가 해독 자료집(PDF)』,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2012, 162면 참조.

하지만 전자처럼 달을 주어로 본다면 앞 구절에 등장하는 긍정적 의미의 달과 상치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9행에서의 달은 이동경로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달빛이 사라지는 형상을 나타낸다. 달은 기본적으로 지상세계의 사물을 밝게 비추는 풍요로운 이미지로, 화랑집단에게 있어 풍월도적 상징물과도 같다. 그러한 달이 아래로 떠갔다는 것으로 해독한다면 앞 구절에서의 화랑의 산행을 밝혀주는 달의 이미지와 다음 구절의 혜성을 길쓸별로 환치하여 나라의 변괴를 없앤다는 주술적인 의미가 퇴색하게 된다.

따라서 주어를 혜성으로 보는 후자의 경우가 더욱 타당해 보인다. 양주동, 김준영, 유창균의 해독대로 ‘達’을 ‘山’의 고어로 상정하여 ‘혜성이 산 아래로 떠갔더라’로 풀이하는 것이 앞 구절과 자연스러운 연결이 된다. 또한 마지막 구절의 설의적 물음인 ‘이 보아 무슨 혜성이 있을고’와 문맥을 같이 하여 혜성은 산 아래로 떠갔으니 혜성은 더 이상 지상세계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읍천사의 <혜성가>는 바로 그와 같은 국내외적 위기를 대처하며 극복한 정치적 자신감을 담은 노래이다. 한마디로 <혜성가>는 과거 왜적의 침입과 현재의 혜성 출몰이라는 좋지 않는 조짐을 경계하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자신감을 드러낸 ‘치세가’로 볼 수 있다.

V. 맺음말

<혜성가>는 혜성의 출현과 관련된 향가 작품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혜성가>의 창작 시기를 기존의 역사 기록과 함께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제공하는 ‘JPL 데이터베이스’라는 천문학적 연구 방법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지금까지 <혜성가>의 창작 시기를 역사 문헌을 근거로 추정해왔다. 대표적인 견해가 조동일의 594년설과 서영교의 607년설이었다. 이들의 입론은 둘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사 문헌과 미항공우주국

의 JPL 천문 기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필자가 미항공우주국의 첨단 JPL시스템으로 <혜성가>와 관련된 혜성을 도출해 낸 것이 바로 608년에 출현한 Pons-Brooks 혜성이다. 『수서』의 기록에 따르면 이 혜성은 오래지 않아 사라졌다. 이 시기 용천사가 <혜성가>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혜성가>의 창작시기는 혜성의 출현시점보다 사라진 시점이 중요하다. <혜성가>의 기술물을 보면 혜성이 출현하였지만 노래를 불렀더니 별의 궤변이 즉시 사라졌다는 기록 때문이다. 용천사가 혜성을 봤을 때는 멀리서 오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혜성이 사라지는 막바지에 관측했던 것이다. 따라서 <혜성가>의 창작시기는 608년(진평왕 30년)으로 폰스-브룩스 혜성이 지구에 출현한 608년 7,8월 이후로 『수서』기록의 608년 9월쯤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어서 진평왕 30년(608) 전후의 역사 기록과 함께 <혜성가>의 창작 동기를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점검하면서 다시 검토하였다. <혜성가>의 창작은 진평왕 30년에 있었던 혜성의 등장과 관련이 깊다. 그런데 여기에서 혜성 출현은 단순한 천문학적인 현상만은 아니었다. 필자는 <혜성가>와 관련 기록이 당시의 국내외적 상황과 정치 현실을 배설해놓은 상징적 기술물로 보았다. 7세기 초엽의 신라는 국내적으로 진평왕이 상부 귀족세력의 견제를 벗어나 친정체제를 구축해가던 시기였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왜국의 침략에 대비하여 경계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던 시기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608년에 갑자기 혜성이 출현한 것이었다. 그런데 <혜성가>를 살펴보면, ①‘왜적의 침입’, ②‘혜성의 출현’, ③ ‘<혜성가>의 창작과 혜성의 소멸’, ④‘왜적의 환국’의 순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혜성가>의 제작은 대내적인 정치 갈등보다는 왜적의 침입이라는 대외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당시 신라 조정에서는 변방의 봉화와 혜성의 출현을 왜적의 침략이라는 국가적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혜성가>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나왔다고 보았다.

<혜성가>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필자는 1~4행의 '舊理'에 주목하여 왜군의 침입은 가요 창작 이전에 있었던 과거적 사건으로 파악하였다. 반면에 5행부터 8행까지는 화랑의 산행과 혜성의 출현에 관련된 현재적 사건으로 보았다. 마지막 9~10행은 혜성은 산 아래로 떠나가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왜군의 침입과 혜성으로 인한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결과로 보았다. 이를 보면 <혜성가>는 과거의 왜군 침입, 현재적 사건으로 608년 당시의 혜성 출현이라는 불길한 조짐의 발생 여부, <혜성가>의 창작과 가창으로 혜성의 소멸이라는 사건 해결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 나라의 근심거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용천사의 <혜성가>는 바로 그와 같은 국내외적 위기를 대처하며 극복해가는 과정을 담은 노래로 여겨진다. 따라서 <혜성가>는 과거 왜적의 침입과 현재의 혜성 출몰이라는 좋지 않는 조짐을 경계하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진평왕의 정치적 자신감을 드러낸 '치세가'로 규정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김부식, 『삼국사기 1』, 한길사, 1998.

김부식, 『삼국사기 2』, 한길사, 1998.

박지용 외, 『향가 해독 자료집(PDF)』,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2012.

연민수 외6, 『역주 일본서기 3』, 동북아역사재단, 2013.

일연, 『삼국유사』, 민음사, 2007.

<https://ssd.jpl.nasa.gov/sbdb.cgi>

https://ssd.jpl.nasa.gov/sbdb.cgi?ID=c00001_0

https://ssd.jpl.nasa.gov/sbdb.cgi?ID=c00012_0

2. 저서

김승찬, 『향가문학론』, 새문사, 1989.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박남수, 『신라 화백제도와 화랑도』, 주류성, 2013.

양주동, 『고가연구』, 일조각, 1965.

이도흙,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 푸른역사, 2000.

이종욱, 『화랑세기로 본 신라인 이야기』, 김영사, 2000.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최성호, 『신라가요연구』, 문헌각, 1984.

최철, 『향가의 문학적 연구』, 새문사, 1983.

홍기삼, 『향가설화문학』, 민음사, 1997.

3. 논문

김병국, 「<혜성가>의 설화 문맥과 해석상의 쟁점」, 『한국고전시가 작품론1』
(백영 정병욱 선생 10주기 추모논문집), 집문당, 1992.

김열규, 「향가의 문학적 연구 일반」,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인문연구론집
4),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2.

서영교, 「『삼국유사』 감통의 「혜성가」 창작 배경」, 『신라문화제 학술발표논문

- 문집』 32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1.
- 신재홍, 「<혜성가>의 역사적 배경」, 『한국시가연구』 16집, 한국시가학회, 2004.
- 박노준, 「혜성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 박해현, 「신라 진평왕대 정치세력의 추이 -왕권강화와 관련하여-」, 『역사학 연구』 2권, 호남사학회, 1988.
- 오출세, 「혜성가」, 『새로 읽는 향가문학』(임기중 선생 환력기념), 아세아문화사, 1998.
- 조동일, 「혜성가의 창작 연대」, 『한국시가문학연구』(백영 정병욱선생 환갑 기념논총2), 신구문화사, 1983.
- 황병익, 「<혜성가>의 쟁점과 의미 고찰」, 『한국시가연구』 17집, 한국시가학회, 2005.

Abstract

*Time when <Hyeseongga> was Written and Examination of its
Contents / Ha Seong-woon(Korea University)*

<Hyeseongga> is an old Korean folk song related to the advent of comet. First of all, this study derived the time when <Hyeseongga> was written by using the astronomical study method 'JPL Database' provided by the NASA along with existing historical records.

Until now, the time when <Hyeseongga> was written has been estimated based on historical documents. The leading opinions are the 594 A.D. theory by Cho Dong-il and the 607 A.D. theory by Seo Yeong-gyo. However, it can be identified that these theories are scientifically invalid when referring to historical documents and JPL astronomical records by the NASA. Also, the Pons-Brooks comet which appeared in 608 A.D. is the one derived by this researcher related to <Hyeseongga> based on latest JPL system by the NASA. According to the records by 『Suseo』, this comet disappeared soon. It seems like Yoongcheonsa sang <Hyeseongga> around this time. When it comes to the time when <Hyeseongga> was written, the point the comet disappeared is more important than the point it appeared. According to the descriptions of <Hyeseongga>, the comet appeared but it immediately disappeared after <Hyeseongga> was sung. Yoongcheonsa did not see the comet coming from a long distance but he observed it during the stage it was disappearing. Therefore, it can be estimated that <Hyeseongga> was written sometime in September 608 A.D. in 『Suseo』 after July and August 608 A.D. (30th year of reign by King Jinpyeong) when the Pons-Brooks comet appeared.

Then, this study reviewed the historical records before and after the 30th year of reign by King Jinpyeong (608 A.D.) and the motive of writing <Hyeseongga> while examining the study outcomes so far. Creation of <Hyeseongga> has a lot to do with the advent of the comet in the 30th year of reign by King Jinpyeong. However, the advent of the comet was not merely an astronomical phenomenon. This researcher understood the records related to <Hyeseongga> as the symbolic records that handled domestic and external situations and political reality. Silla during early 7th century was the time when King Jinpyeong was establishing a

system of hiring close associates for key positions after escaping from tug-of-war with superior aristocrats. Also, externally, it was a time when Silla did not lose tension by preparing for invasions by Goguryeo, Baekje, and Japanese.

In such a situation, the comet suddenly appeared in 608 A.D.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point that the sequence was ① 'invasion by Japanese', ② 'advent of comet', ③ 'creation of <Hyeseongga> and extinction of comet', and ④ 'Japanese return to Japan' in <Hyeseongga>. When referring to this, it can be assumed that creation of <Hyeseongga> was related to an external matter of invasion by Japanese and not related to domestic and external political conflicts. In sum, this means that the Silla Royal Court accepted signal fires in border areas and advent of comet as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This study saw that <Hyeseongga> was written in such a situation.

While examining the contents of <Hyeseongga>, this researcher identified that Japanese invasion was an event which happened prior to writing <Hyeseongga> by paying attention to '舊理' in verses 1 to 4. On the other hand, verses 5 to 8 were seen as present events related to mountain climbing by Hwarang and advent of comet. Verses 9 and 10 were seen as the outcome of all problems related to Japanese forces and comet having been resolved after the comet no longer existed once it fell below mountain. Based on these findings, <Hyeseongga> consecutively embodied invasion by Japanese in the past, whether occurrence of ominous sign of advent of comet in 608 A.D. took place, the process of resolving comet extinction by creating and singing <Hyeseongga>. As a result, <Hyeseongga> identified that concern of Silla disappeared after Japanese went back to their country.

When examining this process, <Hyeseongga> is a song that confronted domestic and external crises and overcame them. Thus, <Hyeseongga> can be defined as a reign song that exposed political confidence by King Jinpyeong who was alerted to ominous signs of Japanese invasion and advent of comet and overcame national crisis.

Key words: Hyeseongga, NASA, Pons-Brooks comet, Halley's comet, old Korean folk song, King Jinpyeong, JPL database, Japanese forces, Chukja, Silla, reign song, suggestion song, ritual song.